

##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 (1)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 (2)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맘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 (3)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 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뉘 능히 끊을꼬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 (1)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 (2) 때때로 괴롭당하면 때때로 기쁨누리네  
풍파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 하시네
- (3)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 (4) 이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후렴)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거느리시네 아멘

3월 24일 (토) 기도 담당 : 이현무 집사

2018년 3월 23일 (금)

## 이른아침예배

인도 : 김명자 목사

예배를 여는말 .....	인도자
신앙고백 .....	다같이
찬송 .....	90장 .....
기도 .....	다같이
성경봉독 .....	역대하 22:10-12 .....
찬양 .....	새벽찬양대
설교 .....	『몰래 빼내시는 하나님』 .....
기도 .....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
찬송 .....	390장 .....
축도 .....	설교자

### 📖 오늘의 말씀 <역대하 22:10-12>

10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11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12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육 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18년 3월 23일 (금)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백성 삼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을 깨워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악한 여인 아달라는 잔인하게 왕자들을 다 죽여 다윗 왕가를 멸하고자 했지만, 다윗왕가를 지속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지켜짐을 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괴하려는 악의 세력들이 난무하지만, 한순간도 저희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는 그 큰 은혜로 인하여 악의 세력들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깨어 있어,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안보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시간, 자녀들의 결혼, 직장, 신앙의 문제, 부모님들의 건강과 노후의 문제, 가정의 사업과 경제적 문제들, 인간관계, 죄성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택한 자녀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특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약속하신 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이 다소 더딘 듯해도 끝까지 믿음을 품고 기도하게 하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상학 담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심으로 맡기신 모든 사역들을 능히 감당케 하시며, 목사님께 허락하신 말씀의 권세로 새문안 모든 권속들의 영혼이 소생되게 하옵소서. 새성전의 건축을 허락하셨사오니, 건축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건축위원들과 CJ건설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며, 온 성도들도 기도와 물질에 한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셔서, 보는 모든 이들을 감동케 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건물로 지어지게 하옵소서. 영장리 추모관 공사의 마무리와 운영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행정적 절차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복음으로 밝히신 하나님! 이제는 저희 해외선교사님들을 이방에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명에 순종하여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족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보내신 그 땅에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보게 하옵소서.

이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에게 바른 안보관과 경제관과 청렴함과 지혜를 주셔서, 저들로 인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한 각종 조치들이 효과 있게 하시고, 나아가 이 한반도에 평화적인 통일한국 시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